전자성경 가사집

JESUS LOVE Lyrics Book

1. 하늘가는 밝은길이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3.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 쉴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은 우리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1892년) 48년간이나 피나는 선교의 일을 하다가 1940년 제 2차 세계대전 발발로 강제 출국 당하여 1954년 95세의 일기로 세상을 마친 윌리엄 스왈른(William L. Swallen 한국명: 소안론) 선교사가 직접 지은 찬송입니다.

그는 1859년 3월 24일 미국 오하이오주 패리스(Paris)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스위스에서 이민 온 크리스천 농부였습니다. 그는 1892년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멕콜넥 장로교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그해 6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깨달은 그는 한참 신혼의 달콤한 꿈속을 박차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동년 11월 그는 서울에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48년간 선교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1902년 숭실 학교를 짓는데 사재를 털어 육영 사업에도 힘썼던 우리나라에 너무도 귀중한 유산을 남긴 선교사였습니다.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배와 같은 민족에게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는 철저한 희생의 길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한국말로 설교할 정도로 우리말에 능했었고 여기 소개하는 이 찬송은 그의 원작이며 우리나라말로 작시한 찬송이므로 영국이나 미국 찬송가에는 없습니다. 그는 앤니 로리(Annie Laurie) 곡을 무척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찬송을 작시할 때 그의 마음에는 이 곡이 한참 울려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곡에 맞춰서 작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천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찬송으로 1905년 그 당시 일본과 러시아 사람들의 간섭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소망을 잃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더 없이 큰 위안이 되었던 찬송입니다.

1절에서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 세상의 슬픈 일, 괴로운 일, 고달픈 일들이 말할 수 없이 많으나 천국의 소망이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 있으니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늘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세상에는 시험이 많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것을 이기니 그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3절은 이 찬송의 결정절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고 늘 나가고 있으니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늘 영광 나라에 계신 임금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 안심하고 그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 있는 찬송입니까.

2.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 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 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 실로암

1.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2.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때는 차가운 새벽 이었소
주님 맘 속에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후렴
오 주여 당신께 감사 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4. 물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1.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2.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 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 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3.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4. 위험한 풍파가 쉬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 속에 빠져 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이 찬송은 1886년 작시자 유포드 목사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근처에 있는 한 작은 마을 웨이스트우드의 침례교회 목사로 있을 때 작시 ·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는 기후의 변덕이 심하기로 이름 있는 난타켓 해변을 자주 나갔는데 그 해변에는 많은 선박들이 암초에 부딪쳐서 산산조각이나 있었고 그곳은 해난 사고가 빈번한 곳이어서 「해난 구조 본부」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찬송가가 탄생된 동기와 배경은 유포드 목사가 어느날 해변에 가니 한 스크너선이 폭풍우로 인하여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결국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배는 뒤집혀 거의 가라앉게 되었고, 선체 일부가 살을 도려내는 듯한 찬바람과 얼음 섞인 파도에 이리 저리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본부에서는 생명줄을 보내기 위하여 라일총을 쏘았지만 거리가 너무도 멀어 배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쏜 후 드디어 한 발을 다시 쏜 것이 그 배 위를 지나갔고 육지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우렁찬 박수와 환호를 올렸고 라일총의 생명줄로 인하여 배의 선원들은 천신만고 끝에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포드 목사의 마음의 눈은 침몰 직전에 있는 난파선에서 겁에 질려 전전 긍긍하는 승객들과 선원들의 모습에서 세상 죄의 바다에 빠져 죽기 직전에 있는 죄인들에게 돌려졌고, 이 찬송이 완료될 때까지 그의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알러톤항 구조본부에서 훈련상황을 지켜보던 유포드 목사는 지휘자가 "생명줄을 던져라!"라고 명령하자 수명의 구조대원들이 암초 건너편에 좌초되어 있는 가상 선박에 생명줄을 던지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지휘자는 인견으로 된 생명줄을 보이며 이 생명줄을 사용하여 많은 목숨을 건진 최근의 구조 상황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날 저녁 집에 와서 이 모든 경험들을 정리하니 한편의 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가 1885년이었습니다. 이 찬송은 곧 유명해졌고, 그 후 많은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유포드 목사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했는데 저녁 예배 설교가 끝난 후 이 찬송의 작시 동기와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회중들이 요청하자 그는 다 설명하고 생명줄 한 토막을 보이며 "이 생명줄은 1902년 케이프 곧 앞바다에서 엘시 시미드호가 침몰한 사고 때 많은 생명을 건진 바로 그 생명줄입니다"라고 하자 한 노인이 앞으로 나오며 "제가 바로 그 생명줄로 구조되어 나온 16명의 구조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뉴잉글랜드의 목사지요..."하며 자신을 소개하자 회중들은 그 노인 목사와 유포드 목사의 손에 든 생명줄 한 토막을 번갈아 보면서 감개무량해 했습니다.

5.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은 종교 음악가 나 운영(1922. 3. 1.– 1993. 10. 21.) 박사가 시편 23편에서 1, 2, 4, 6절을 발췌하여 곡을 붙인 것으로 시편 23편에서 부각시킨 이미지를 목가적인 멜로디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에서 격정적인 멜로디로 바뀌었다가 다시 목가적인 멜로디로 돌아온 점과 우리나라 민요풍의 가락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심중에 강하게 직소한다는 점이 이 성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동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간 우리 교포들 가운데 교회음악에 조예가 깊은 분들에 의해 자주 독창곡으로 불려지며 듣는 사람들이 모두 깊은 감명을 받는 곡입니다.

작곡가 나 운영 박사는 1922년 3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제국 고등음악학교 본과 작곡과를 나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작곡 공부를 더하기 위해서 작곡가 모로이 사브로 선생에게 작곡학을 배웠습니다. 1943년 귀국하여 천주교 혜화동 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성가대 지휘를 맡았으며 한 때는 신부가 되려고도 했으나 단념했습니다. 그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장을 지내셨고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학장으로 후진들을 양성하기도 했으며 수백 곡의 찬송가을 작곡했습니다. 1974년 5월 미국 오레곤주 포트랜드 대학으로부터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작곡 동기에 대해서 나 운영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0년 6 · 25동란 때 피난가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1951년 1 · 4후퇴 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가지고 간 것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밖에 없었는데 그 피난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옷을 팔아 그날그날을 겨우 연명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정 달빈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로부터 매월 독창곡 한곡씩을 해군 본부교회에서 발표해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시편 12편, 46편, 23편, 15편, 30편 등 5곡을 작곡하여 매월 한 곡씩 나의 아내 성악가 유 경손의 독창과 나의 반주로 초연하였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곡은 1953년 5월 3일 작곡했습니다. 앞서 작곡한 시편 46편의 "피난처 있으니"는 극적인 작품으로 매우 난산이었는데 비해 시편 23편은 가사를 외우던 중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 3분 만에 반주까지 전곡을 완성하였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작곡이 되었기에 내 자신이 이 곡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초연되었을 때 독창자나 반주자는 물론 온 교인이 모두 감격하여 그야말로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그토록 어려웠던 피난 중에 듣게 되니 더욱 더 감명 깊었고 한없는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라고 듣는 이마다 입을 모았습니다.

나는 수많은 곡을 작곡했으나 아직까지 이곡처럼 거침없이 적어 내려 간 예가 없으니 어디 이 곡이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나는 하나의 기계로서 나에게 전달되는 영감을 그대로 옮겨 놓은데 불과한 것입니다.」

6. 어느 민족 누구게나

1.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
주가 주신 새목표가 우리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2.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 날까지 서리라

3.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좇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가리라
새시대는 새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4.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둔 장막 덮쳐도
하나님 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7.솟아 올라라/내게만족없었네

1. 솟아 올라라 생명의 샘물 솟아 올라라 넘쳐나라
   솟아 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하라

2.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솟아 올라라 넘쳐나라
   솟아 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사람을 자유케 하라

3. 솟아 올라라 축복의 샘물 솟아 올라라 넘쳐나라
   솟아 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하라

4 솟아 올라라 기쁨의 샘물 솟아 올라라 넘쳐나라
   솟아 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하라

내게만족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8.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모든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알렐루야

2.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아니요 하나님말씀으로
그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알렐루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알렐루야

3. 구하면 너희에게 주실것이요 찾으면 얻으리라
두드리면 네게 열어주리라 알렐루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알렐루야

9.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1.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2.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찬송은 헨리 레이크 길모어(Henry Lake Gilmour) 작시에 조지 무어(George D. Moore) 작곡으로 되어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번역자 윌리엄 스왈른(William L. Swallen 1859-1954) 박사의 찬송 시라고 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번역자 스왈른 박사는 우리나라에 온 초대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 많은 찬송 시를 작시 · 작곡을 했고 많은 외국 찬송을 번역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문에 치중한 것도 있으나 많은 찬송을 이 나라 신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번역과 운율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번역곡이라 할지라도 순수 창작곡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이 찬송도 그런 찬송 중의 하나입니다.

길모어는 1836년 1월 19일 아일랜드 런던데리(Londonderry)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바다에 꿈을 품고 16세 때 선원이 되었으나 고달픈 선원 생활에 적응치 못하고 그의 배가 미국 필라델피아에 닿았을 때 그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페인트 도장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남북전쟁 후 필라델피아 대학에서 공부하여 여러 해 동안 치과병원을 개업하기도 했습니다. 1869년 그는 뉴저지주 위노나로 이사하였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1885년부터 그는 자기 집에서 위노나 감리교회를 시작하였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그는 헌신적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집사, 주일학교 부장, 성경 공부반 지도자, 성가대 지휘자 등 교회 일이라면 가릴 것 없이 닥치는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독창자로서도 매우 훌륭한 재능을 타고 난 사람이며 많은 존경을 받는 성가대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은 그의 생애를 배경으로 한 찬송이요, 그의 일생을 이 찬송으로 요약한 믿음의 찬송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경험했던 선원 생활과 거친 바다를 소재로 하여 읊어놓은 것입니다. (윌리엄 스왈른이 번역하기 전 헨리 레이크 길모어의 작시를 말한다) 바다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어려움이나 두려움. 인생의 항해도 이처럼 폭풍우를 만나 술렁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풍랑으로 가정이란 적은 배가 파선당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이라는 배와 명예의 배가 파선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항구로 가야할 것입니까? 작시자는 「안식의 항구」즉 그리스도 예수의 품만이 우리가 편히 쉴 곳이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는 파선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약하기만 한 배는 파선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할까요?"

10.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 주 언제 강림 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11. 두려워 말라 (오직 믿음)

1. 두려워 말라 주님의 양들아
   십자가에서 저 하늘 보좌로
   그 죽음에서 빛난 영생으로
   우리 주 예수 인도하시리라.

2. 두려워 말라 주님의 양들아
   주는 선하신 우리의 목자니
   영생의 샘터 푸른 동산으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리라.

[후렴]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
모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만사형통하리 오직 믿음.

12. 주의 사랑 비칠때에

1.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출 때 기쁨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주네 그 큰 사랑

2.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주네그 큰 사랑

3.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주네 그 큰 사랑

4.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취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취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주네 그 큰 사랑

13.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2. 괴롬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3.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4.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5.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후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 곳에 서게 하소서
   그 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을 작시한 존슨 오트맨(Johnson Oatman Jr.: 1856-1922)은 1856년 4월 21일 미국 뉴저지주 메드포드(Medford) 근처에서 태어났으며 보덴타운의 뉴저지 대학을 마쳤습니다. 19세 때 감리교 감독파 교회에서 목사안수까지 받았으나 목회는 하지 않고 지방전도자로 순회하면서 부친이 경영하는 사업을 도왔고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보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1892년경부터 그는 성시를 쓰기 시작하여 세상을 마치기까지 5,000편 이상의 시를 썼습니다.

이 찬송의 제목이「Higher ground」로서 이를 직역하면「더 높은 땅」즉, 천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존슨 오트맨은 이 괴로움 많은 곳에서「저 높은 곳」을 그리며 시편 61편 2절「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간구를 자기의 간구로 삼아 이 찬송을 작시하였던 것입니다. 즉 1절은 계속 위로 올라가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고, 계속 높이 올라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주여, 더 높은 곳에 내 발을 붙이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2절은 의심이 많고 죄가 많으며 두려움이 우리를 낙망케 하며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이 더 이상 머무를 미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3, 4절은 의심과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에 가기 위하여 싸우며 나간다는 분투를 설명하고 있고 이런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5절은 이런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최후의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복락 누리며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 내 주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참으로 뜻이 깊은 내용을 극화한 찬송입니다. 이같이 오랜 수고 끝에 쟁취한 열매는 매우 감미롭습니다. 더욱이 그 결과가 천국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에 뒤덮혀 어둠침침한 골짜기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와 그와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자 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사리「새 고지(New Heights)」를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죽음과 공포와 의심의 골짜기에서 신령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후에 얻어지는 결과요, 하나의 믿음의 승단인 것입니다.

존슨 오트맨은 매우 다산(多産)의 작가로서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들이 쓴 찬송가에 성가시를 많이 제공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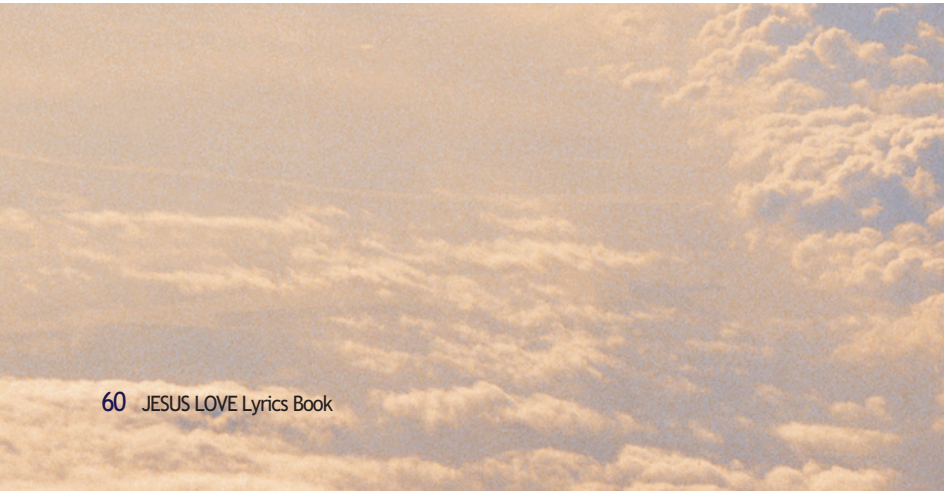
1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2.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 베개 베고 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3.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 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4.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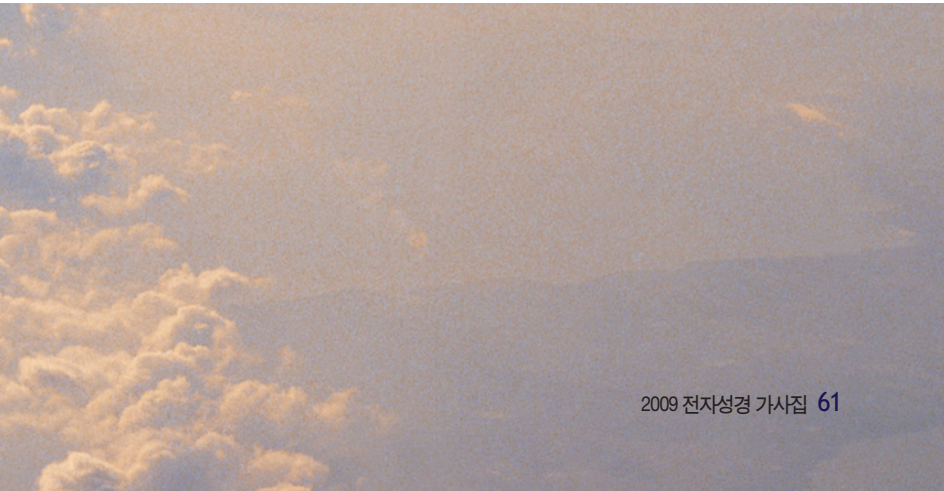
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 막은 내리어졌고 키가 크고 비범한 생김새의 아름다운 여배우가 런던 리치몬드 극장의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1837년 이 찬송의 작시자인 아담스(Sarah Flower Adams)가 맥베스 부인 역으로 마지막 출연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5세 때 모친이 폐결핵으로 죽고 언니 에리자가 병으로 병상에 누웠는데 이제는 그녀 자신까지 32세의 나이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무대 생활을 떠나 서정시와 극시, 또는 찬송시를 쓰는 데로 방향을 전환해서 종교 월간지 "The Repository"에 기고했습니다. 그녀는 찬송시를 쓰기 위해 성경을 많이 탐독했는데 1840년 어느날 창세기를 읽다가 28장 10절-22절의 벧엘의 야곱 이야기에 그만 사로잡혔습니다. 고독하였던 야곱에게 같이 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었던 야곱의 처지가 자기가 걸어가야 하는 앞날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녀는 야곱이 베었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 심정을 시에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다음해 그가 작시한 다른 13편에 시와 함께 출판하였는데 그것이 아담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후 아담스는 7년이 지난 후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야곱에게 같이하신 하나님이 그와 가까이 하려던 아담스에게 같이 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찬송이 많은 성도에게 감화를 주었고 오늘날에도 옛 성도가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 성도와 오늘의 성도 또한 미래의 성도들과 영원토록 이 은혜의 금사슬로 묶어놓은 것이 이 찬송인데 그것은 이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은 많은 학자나 찬송 작가들이 내용을 수정하려 했으나 그 말씀과 그 운율은 그대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메이슨(Lowell Mason: 1792-1872)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며 주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을 거두어 주시기를 빕니다.

야곱을 인도하시던 하나님! 이 한 죄인도 잡아주소서.



15. 할수있다 하신이는

1.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 라 하 – 시 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 네
할 수 있 – 다하신 주 할 수 있다하신 주
믿음만 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 시 네
믿음만 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 시 네

2.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 라 보 – 시 고 능력 준다 하 – 시 네
할 수 있 – 다하신 주 할 수 있다하신 주
사랑만 이 사랑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사랑만 이 사랑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3.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 라 하 – 시 고 십자가를 지라하시 네
할 수 있 – 다하신 주 할 수 있다하신 주
희생만 이 희생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희생만 이 희생만 이 능력이라 하 시 네

16.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1.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닻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 가운데 가보라

2.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물결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나

3.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보고 맘이 조려서 못가네

4.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17. 승리는 내것일세

승리는 내것일세 승리는 내것일세
구세주의보혈 로써 승리는 내것일세
내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써 항상 이기네

18. 주여 이죄인이

1.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맘대로 고집하며 온갖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죄인도 용서 받으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 받을 수 있나요

2. 많은 사람 찾아와서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 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죄인을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곳 없는 이몸 위로 받기 원합니다

3. 이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 만지셨네
내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내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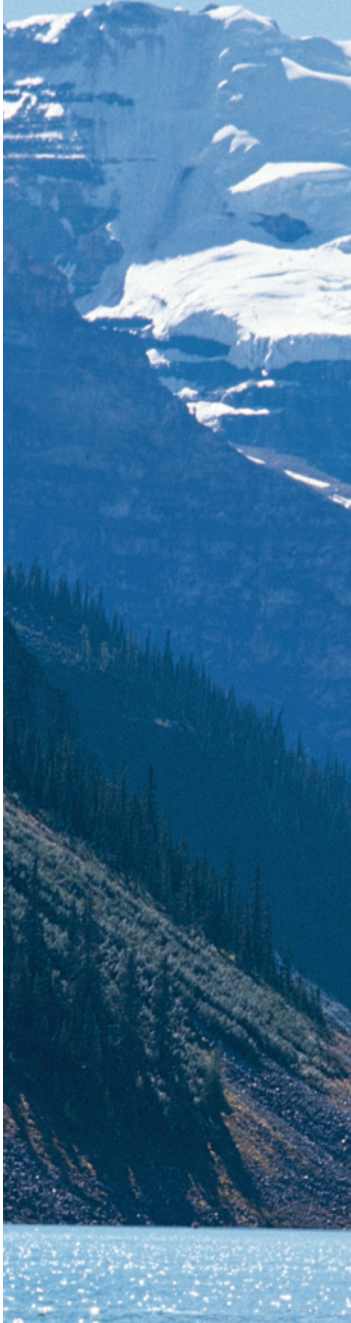
4. 내 모든죄 무거운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함께 계신다오
내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19. 그 모습 그대로

1.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 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2.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3. 당신도 이제는 다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을 지심을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께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인생길로



20. 환난과 핍박 중에도

1.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 네

2.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 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프레데릭 윌리암 페이버(Frederick William Faber)의 찬송가집 "예수와 마리아"와 1849년도 판(런던)"노래와 낭독을 위한 카톨릭 찬송가집"에 처음 실렸던 찬송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관하여 시로 읊은 훌륭한 작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쓰여 진 후 기독교인들의 순교자가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참형으로 순교를 당한 성도가 있고 심포로사와 같이 몸에 무거운 돌을 달아 강이나 바다에 던져져 순교당한 성도도 있습니다. 폴리캅 같이 불에 태워 죽인 성도 등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방법으로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어떤 저자나 역사가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순교당한 성도들은 최소한 5천만 명이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순교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권비바란(Boxer Rebellion)에서의 순교자, 공산통치 시초의 기독교인들의 순교 등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여 마침내는 순교의 제물이 된 믿음의 성도들을 굳이 먼 나라나 오랜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도 왜정치하에서나 공사주의자들의 총칼로 비참한 죽음을 택한 주의 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주 기철 목사, 길 선주 목사, 최 권능 목사, 그리고 많은 장로나 집사들,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죽음을 당하였고 해방 후 이북의 공산치하 또는 한국동란 때 주의 종들이 많은 피를 뿌리고 주께로 갔습니다. 이 많은 모든 피들이 다 하나님께 상달되었건만 아직도 피의 수나 양이 차지 않았는지 이 민족에게는 끊임없는 환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는 페이버 신부가 조상들의 확고한 믿음의 신앙에 대해 부른 찬송인데 원문에는 "성도의 신앙 마리아의 기도(Faith of Our Fathers, Mary's Prayers...)로 되어 있었으나 이토록 훌륭한 찬송을 신 · 구교 할 것 없이 다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임스 왈튼(James G. Walton)이 오늘의 찬송으로 증보, 수정해서 1874년 그가 편집한 찬송가집(Plain Song Music for the Holy Communication Office)에 실렸던 것입니다.

이 찬송곡 "성 캐터린(St. Catherine)"은 헨리 헤미(Henry F. Hemy)가 작곡하여 "동정녀와 순교자인 성 캐터린"이란 제목으로 찬송가집 "예수음악의 왕관(Crown of Jesus Music, London 1864)"에 처음 실렸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캐터린은 4세기의 순교자입니다.

2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몸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 난다

2.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22. 기도하자 우리마음 합하여

1. 기도하자 우리마음합하여
기도하자 우리마음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마음합하여

2. 찬양하자 우리모두 주님께
찬양하자 우리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자 우리모두 주님께

3. 바라보자 주님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계신 천국을

23. 여호와 나의 목자

1.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위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2.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렴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3.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4.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24.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후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성경 말씀이 세상의 문학 작품과 다른 점의 하나는 성경은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근본 의의는 서로가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한 바를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약속하신 것 외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인간이 약속을 어기었을 때도 관대하게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십니다.

이 찬송의 작곡가이고 후렴의 작시가인 안토니 쇼왈터 목사는 1858년 5월 1일 펜실베이니아주 췌리 로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이 30에 벌써 부흥사요, 음악가로 큰 활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저곳에서 부흥 집회를 가지며 또 음악학교에서는 음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앨라배마주, 조지아주로 전전했습니다.

1888년 그가 앨라배마주의 한 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있을 때 바로 전에 집회를 인도하고 온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두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둘 다 음악학교에서 노래를 배우던 학생들이었는데 편지를 뜯어보니 그 내용이 너무 비슷하고 거의 같은 시간이었음에 목사는 놀랐습니다. 둘은 다같이 그들의 부인을 잃고 장사를 지낸 후 곧 편지를 쓴 것인데 같은 날짜에 썼던지 꼭같이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쇼왈터 목사는 앉아서 고요히 눈을 감고 슬픔을 당한 그 젊은이들을 위로할 말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중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팔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는 이 말씀과 더불어 편지를 썼는데 이 말씀을 쓰고 생각하니 참으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찬송이나 성가로 된 것이 없음을 발견하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곧 그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에 대하여 찬송시를 써서 이와 같은 슬픔을 당한 모든 이에게 위로의 힘이 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봉하기 전에 작시와 작곡을 모두 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곡과 후렴의 작시 밖에 못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에라이샤 호프만 목사에게 보내어 그 찬송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호프만 목사는 근 20세나 연상으로 펜실베이니아주 태생으로서 매우 가까운 친구 목사였습니다.

이리하여 두 친구의 작시와 작곡이 결부하여 많은 사람들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훌륭한 찬송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20살이나 되는 나이의 차는 있으나 하나님은 이들을 친구로 맺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25. 구주 예수 의지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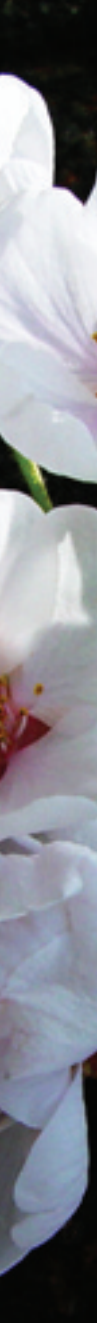
1. 구주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일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2. 구주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일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3. 구주예수 의지함이 죄악 벗어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 구주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후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26.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1.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2.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3.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4.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제 주만위해 힘써 일하리

5. 나의 소망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셨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후렴
나의 생명 되는 내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27. 나의 사랑하는 책

1.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 니다.

2.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

3.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 합니다.

4.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 때때로
   성경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후렴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노래는 주관적인데 반해 찬송은 객관적이며 성경에 관해 부른 찬송 중에는 "나의 사랑하는 책"만큼 잘 알려지고 많이 애창되는 찬송이 없습니다.

과거 19세기말의 20여년 동안의 성가나 대중가요가 특이하게 감상적이어서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 찬송이 바로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감성적인 기분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머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던 성경을 자기도 사랑한다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지 않는 감명을 주고 있고 이제는 성경에 관한 찬송으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작시 동기는, 하루는 부흥사 윌리엄스(M. B. Williams)목사가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려는데, 그의 설교 후 찬송으로 성경에 관한 적당한 찬송을 고르려고 여러 곳을 뒤적거렸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동역자 틸만 목사에게 성경에 관한 찬송을 골라 달라고 하자, 틸만 목사는 "윌리엄스 목사가 작시를 해 보시오. 그럼 내가 곡을 붙이도록 해 볼테니까요"라고 했습니다. 윌리엄스 목사에게는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쾌히 받아들여 성경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성경은 그의 어머님이 오랜 세월을 두고 충실하게 고이 간직해 가며 애독하다가 임종 때 윌리엄스 목사에게 주신 성경이었습니다.

윌리엄스 목사는 성경을 펼쳐서 뒤에 공백 면에다 연필로 "어머님의 성경"이라고 써놓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성경으로 가르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말씀해주시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던 그때의 일 등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성경을 얼마나 어머님이 사랑하며 읽으셨던가를 그대로 적어내려 갔습니다. 15분도 채 못 되어 그의 작시는 다 끝나 동역자 틸만 목사에게 3절과 후렴까지를 모두 읽어 주었습니다. 틸만 목사는 깊이 감동이 되었는데 다음의 2절을 읽을 때는 그도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어머님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 고초당하시고 피 흘리셨으며 돌아가셨다는 것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근심의 짐은 나를 위하였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흘렀는데 어머님은 입맞춤으로 내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 중에서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들을 이 곡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돌이켜 봅시다.

28. 새롭게하소서

해아래 새것이 없나니 이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된 이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하소서 새롭게하소서
새롭게하소서 새롭게하소서

29. 위에 계신 나의 친구

1.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2.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3. 내 맘 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네
   가지된자 하나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4. 그 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사랑하는 나의 친구

후렴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30. 어디서 들리는가

1. 어디서 들리는가 주의 고운 음성
가만히 눈 감고 귀 기울이면
멀동이 튼 아침길 홀로 걸으면
내 손 잡으라 부르는 소리
작은 자 귓전에도 소망의 음성
어둠에 가린 눈에 광명의 빛이
오 주여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2. 어디서 들리는가 생명의 목소리
어둠을 가르고 내게 들리며
연약한 믿음에서 생명샘 되어
참 사랑에 길 인도하시네
식었던 내 가슴에 성령의 불꽃
메마른 내 생활에 사랑의 안식
오 주여 내 몸 적시소서 당신의 음성으로

31. 이세상은 나그네길

1. 이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 요 이땅에 있을 맘 없어요.

2.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롬 된 세상
우리 주님 의지할 것 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 몸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3. 이 세상은 어제 밤의 꿈과 같은 천막집
그 기쁨은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같이 헛되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후렴
이세상 이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오시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 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32. 하나님의 진리 등대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2. 죄의 밤은 깊어 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무리 많구나

3.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후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어느 날!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선생"의 설교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둔 밤입니다. 사나운 폭풍우와 싸우던 큰 여객선 한 척이 클리블랜드 항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타수는 사방을 분간 못하는 암흑 속에서도 항구를 알려주는 두 개의 등대만 찾는다면 배를 무사히 항구에 댈 수 있으나 등대엔 불이 하나밖에 비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선장 : 여기가 클리블랜드인가?

타수 : 분명합니다.

선장 : 작은 등대불은 그럼 어디 있나?

타수 : 다 꺼졌습니다.

선장 : 그러면 어떻게 항구에 댈 수 있겠는가?

타수 : 항구를 찾아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데요.

타수는 용감히 키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배는 암초에 부딪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디 선생은 외쳤습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위대한 등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작은 등대가 되어 불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을 찾는 어두운 세계의 모든 영혼들을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착한 행실, 그러한 빛이 없다면 그것은 불 꺼진 등대요, 모든 사람을 암흑으로 이끄는 결과가 됩니다.

성도의 행동이 이웃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다면 불신자가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은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립 폴 블리스(Philip Paul Bliss)였습니다. 그는 설교직후 은혜로움을 가사로 적어 찬송에 옮기니 그 곡이 바로 「Let the lower lights be burning(하나님의 진리등대)」였습니다. 작시자 블리스는 통나무 움막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신앙심이 깊은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작곡가 조지 F. 루트에 사사했고 작곡가 윌리엄 브래드베리에게 가르침을 받아 음악교사로서의 자질을 길렀습니다. 22세에 그의 음악교사의 경력이 시작되었고 결혼 후에는 그의 부인을 따라 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장과 시카고의 제일 회중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맡아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음성의 소유자로서 낮은 D음에서 고음 A플랫까지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재질의 축복을 받았고 이 재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바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풍부한 창작력으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받은 은혜를 곧 찬송으로 옮기는데 뛰어나 설교자의 설교를 찬송으로 옮겼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하나님의 진리등대」입니다.

33.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3.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 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34.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 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2.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3.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4.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동기로는 무디 선생과 생키 씨가 스코틀랜드의 어느 도시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어느 소녀가 자기 교회 목사를 찾아가 자기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참으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담임목사는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나 그 소녀가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하는 영적 문제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확신을 줄만한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 이사야 53장을 읽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막연한 설명으로 이 소녀의 영적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고 더욱이 이 소녀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소녀여서 마음이 더욱 더 애통하다는 듯이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저는 기도도 할줄 몰라요!" 그리고는 두 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주 예수님이시여, 내 이 부족한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 그 소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 소녀는 바로 그때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소녀가 체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부인, 바로 에리자 해밀톤은 그 소녀가 그리스도께 외친 그 외침을 찬송시로 옮겨서 생키 씨에게 주니 그것이 바로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보잘 것 없는 한 작은 소녀가 그리스도에게 외친 그 외침이 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그 구원 베풀어 주시사 날 받아 줍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있는 상태 그대로 가면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고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시며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도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35.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1.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못하나
한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2.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3.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앞에 험산 준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리 –아멘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찬송의 작시자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 1801-1890)은 옥스퍼드 운동(1883년경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창도된 영국국교 준봉운동)의 지도자였고, 27세에 영국교회 교구 목사가 되었는데 당시의 교회부조리에 회의를 느끼고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하여 나중엔 추기경까지 지냈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때, 몸이 쇠약해져 휴양차 이태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로마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그의 영적인 문제와 교회선택 문제 등 신앙문제 등을 의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건강이 악화되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선편이 없었습니다. 3주를 기다리다 겨우 건너올 수 있었는데 범선을 타고 오는 도중에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배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배에 있는 오렌지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선장은 걱정하였습니다. 병약한 뉴먼 목사는 안절부절하게 되었고, 갑판 위를 거닐며 바람을 좀 보내서 배가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뉴먼 목사는 선장에게 언제나 가게 되는지,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장은 일을 하면서 침착하게 "여보 젊은 양반,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바람을 받아 항해하는 우리는 바람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왔소"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뉴먼 목사는 선장의 말에서 꾸지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뉴먼 목사는 다시 선장을 향하여 바람을 좀 일으켜 보시지요 했더니 선장은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난 자랑스런 인간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밤중에 갑판 위에 올라와 보니 뉴먼 목사는 안절부절하며 갑판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별이 다시 빛나고 있군요. 오늘밤에라도 바람만 일기만 하면 저 돛이 바람을 잡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로 무사히 갈 수가 있을 텐데요." 뉴먼 목사는 의아한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 작은 별빛으로 항해를 한단 말인가요?" "낮에는 해가 있어야 하지만 밤에는 저 작은 별 하나로도 족하지요"라고 하고는 그의 선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뉴먼 목사는 별들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뉴먼 목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교훈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3절의 시에 그의 의심으로부터 믿음으로, 미혹으로부터 확신으로의 영혼의 순례 경험을 읊었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이며 목사인 존 바커스 다이크스(Rev. John Bacchus Dykes: 1823-1876)가 1865년 8월에 작곡하였는데 그는 1834년 3월의 브리티시 매거진(British Magazine)의 낡은 잡지를 읽다가 "천성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견하여 이에 감동되어 작곡한 곡입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6. 부름받아 나선 이 몸

1.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2.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3.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37. 내 진정 사모하는

1.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와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적에 큰 위로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2.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 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 보시니 주는

3.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후렴
주는 저 산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위에 비길 것이 없도 다. –아멘

이 찬송의 작시자인 찰스 윌리엄 프라이(Charles William Fry)는 1837년 5월 29일 영국 샐리스베리(Salisbury)에서 태어나서, 17세 때 그가 살고 있는 도시의 웨슬레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조부와 부친은 이름 있는 건축업자였는데 그도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의 세 아들을 이에 가담시켰었고 상당히 명성 높은 건축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취미로 코넷을 배워 불었는데 매우 잘 불었습니다. 아들들에게도 이를 가르쳐 주었는데 아들 역시 잘 다뤄 그들로 구성된 악단이 제법 알려졌고 호평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후에 생업을 버리고 전적으로 주의 일에 바치기로 하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습니다. 프라이 씨는 병이 발생하여 몸져눕게 되었으며 끝내 회복을 못하고 1882년 8월 23일 45세라는 젊은 나이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프라이 씨는 백합을 매우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하며 그는 산골짜기에 핀 백합화요, 새벽별이라고 했습니다. 가시밭에 핀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데 찢기면 찢길수록 더 드높은 향기를 발합니다. 가시는 모질게 자기를 해하나 향기를 풍겨주는 백합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캄캄한 죄악 세상을 걷다가 샛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자는 설명하기를...

1절은 이런 예수를 친구로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주는 만능이시오, 온전케 하시는 이요, 슬플 때 위로하시는 분이요, 괴로울 때 붙드시고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는 분이라고 했으니 과연 백합화가 아니겠습니까?

2절은 주는 고통과 슬픔을 담당하시고 유혹이나 시험 당할 때 위대한 탑과 같아서 의지할 수 있고 세상의 친구가 날 버려도 예수님만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 지켜서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 변치 않는다면 세상에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만 지키면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그의 빛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38. 만세반석 열리니

1.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2.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쉬임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 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3.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4.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 멘.

만세반석 열리니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낙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그다지 없으나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개 치는 날이면 몹시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천벌이 벼락으로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찬송의 작시자 아우구스티스 톱레이디 목사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비와 번개를 피하여 부근의 큰 바위 사이의 틈바구니에 들어가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큰 안도감을 얻었고 그때 영감을 받아 만세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죽음이나 환란이나 어떤 공포에서도 안도감을 갖게 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어 이 곡을 작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해설가 윌리엄 젠슨 레이올즈 박사는 찰스 웨슬리 목사의 "성만찬에 관한 찬송가집"의 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말에서 영감을 받아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을 것이라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이제 상에서 나누어 질 때 주를 따르고 섬기려는 나의 열심히 당신이 엠마오에서 나눌 때 당신의 제자들의 가슴이 불탄 것 못지않게 이 심령도 불타게 하시고 반석의 바로 갈라진 틈에서 나오는 물이나 붉은 피가 솟아 나오던 곳이 바로 내 구주의 상처이오니 오! 이스라엘의 반석이시고, 구원의 반석이시며 나를 위하여 맞고 갈라진 반석이시여! 당신의 옆구리에서 솟아 나왔던 피와 물의 두 흐름이 내가 호렙산에서 섰다고 하는 것보다 비록 먼 곳에 있을 지라도 내 영혼이 갈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찬송시는 톱레이디 목사가 영국 남쪽 "멘딥 힐"의 "버링톤 쿰"에 있는 큰 바위 틈바구니에 천둥을 피해 들어갔다가 영감을 받아쓰게 된 것이며 그때 종이라고는 그의 주머니에 카드놀이할 때 넣었던 다이아몬드 6의 카드 한 장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라도 없었던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토록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카드놀이의 카드는 지옥으로 가는 패스포드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더욱이 보수적인 칼빈주의자인 톱레이디 목사가 카드놀이를 하고 그걸 주머니에 한 장 남겠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주는 카드 한 장이 위대한 찬송이 탄생할 때 쓰인 유일한 산파구였다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다. 하기야 부끄럽고 수치스런 십자가도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는 지상 최후의 목적의 도구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미천하고 더럽고 또한 부끄러운 것들을 들어서 놀라운 주의 뜻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9. 저 멀리뵈는 나의 시온성

1. 저 멀리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라

2. 아득한 나의 갈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곤할 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 주시리

40. 주님가신길

1. 주님 가신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2.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욱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3.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름 피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4.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41. 확실한 나의 간증 (예수를 내가 주로믿어)

1. 예수를 내가 주로 믿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예수께 맡긴 나의마음 사랑의 속삭임 들으면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과 신비한환상 보리로다

3. 주안에 있어 즐거워라 마음의 풍랑이 잠자도다
   세상도 없고 나도없고 사랑의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 찬송하리

42. 복된 예수

Blessed Jesus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There is a name I love to hear
Jesus blessed Jesus
Thee for a music on my ear
Jesus blessed Jesus
No other him so you're to me
Hey Jesus lamb of Calvary
His precious life He gave for me
Jesus blessed Jesus

43. 가까워오죠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나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 받기 늦지 않아요
셋 둘 구름타고 다시 오실 날 점점 가까워오죠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44. 어둔밤 쉬 되리니

1.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 히 오리라

2.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 어둔 밤 쉬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 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 써 일하라

어둔 밤 쉬되리니

아마 인간이 장수하는 비결중의 하나가 노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봅니다.

자기 어머님에게 자기 발을 씻게 한 청년이 마을에서 소문난 효자라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 봉건사회나 비기독교 사회에서는 노동은 상노나 농노들만의 전유물로 매우 천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도 톱과 대패를 들고 직접 노동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동의 존엄성과 숭고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문화인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노동을 할뿐 아니라 인간의 내적가치 창조의 매개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불구의 몸이 되어 창밖을 내다보다가 노동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너무나 부러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안한 가운데 취하는 휴식이 무엇이 즐거우랴? 그러나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 가정에 돌아와 취하는 휴식의 즐거움을 무엇에다 족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애니 루이스 코그힐(Annie Louise Coghill)"은 인생이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오리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찬송시를 써서 노동의 존엄성과 숭고함을 표현했습니다.

이 시가 곧 "어둔 밤 쉬되리니"입니다. 이 찬송시는 코그힐 여사가 18세의 소녀였던 1854년에 작시하여 그 당시 처녀명 '애니 루이스 워커' 란 이름으로 캐나다 신문에 실렸었는데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공동번역)에서 은혜 받고 작시한 것이며, 1861년 그의 시집인 "뒤 숲에서 날아온 잎(Leaves from the Back woods"에 실렸습니다.

이 원시에는 매절 끝에 "Night, when man's work is done(우리의 일을 마치면 밤이다)"라고 되어 있으나 작곡가 "로웰 메이슨(Lowell Mason)"이 운율을 맞추기 위하여 6절음을 현재의 5절음으로 줄여 작곡했습니다.

이에 대해 작시자는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이 찬송시의 운율상 수정이 불가피했고 이 수정된 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로웰 메이슨이 작곡한 이 노래는 그의 노래집 "노래정원"에 제일 먼저 실렸었고 1864년 보스톤과 뉴욕 판의 공립학교 노래책 제2권에 81장으로 실렸습니다. 경쾌한 리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의 숭고성을 가르쳐준 곡이라 하겠습니다.

45. 나 어느 곳에 있든지

1.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2.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3.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4.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후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46.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1.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못하나
한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2.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3.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앞에 험산 준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 리 –아멘

내 갈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찬송의 작시자 존 헨리 뉴먼(John Henry Newman: 1801-1890)은 옥스퍼드 운동(1883년경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창도된 영국국교 준봉운동)의 지도자였고, 27세에 영국교회 교구 목사가 되었는데 당시의 교회부조리에 회의를 느끼고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하여 나중엔 추기경까지 지냈습니다. 그의 나이 32세 때, 몸이 쇠약해져 휴양차 이태리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로마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그의 영적인 문제와 교회선택 문제 등 신앙문제 등을 의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건강이 악화되어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으나 선편이 없었습니다. 3주를 기다리다 겨우 건너올 수 있었는데 범선을 타고 오는 도중에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배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배에 있는 오렌지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선장은 걱정하였습니다. 병약한 뉴먼 목사는 안절부절하게 되었고, 갑판 위를 거닐며 바람을 좀 보내서 배가 움직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뉴먼 목사는 선장에게 언제나 가게 되는지,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선장은 일을 하면서 침착하게 "여보 젊은 양반,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한 걸음씩 바람을 받아 항해하는 우리는 바람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왔소"하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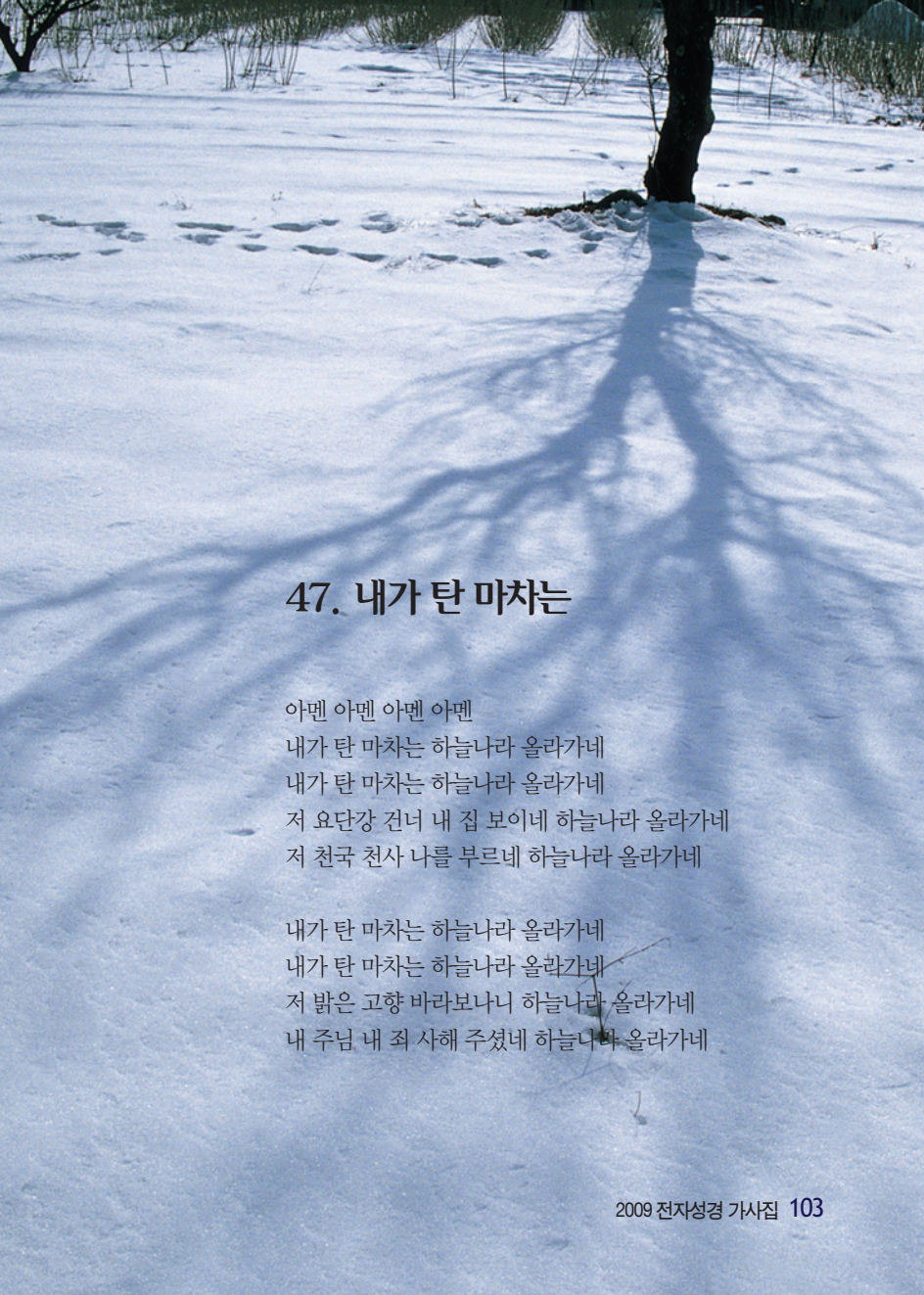
뉴먼 목사는 선장의 말에서 꾸지람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뉴먼 목사는 다시 선장을 향하여 바람을 좀 일으켜 보시지요 했더니 선장은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난 자랑스런 인간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장이 밤중에 갑판 위에 올라와 보니 뉴먼 목사는 안절부절하며 갑판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선장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별이 다시 빛나고 있군요. 오늘밤에라도 바람만 일기만 하면 저 돛이 바람을 잡아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항구로 무사히 갈 수가 있을 텐데요." 뉴먼 목사는 의아한듯이 물었습니다. "아니 저 작은 별빛으로 항해를 한단 말인가요?" "낮에는 해가 있어야 하지만 밤에는 저 작은 별 하나로도 족하지요"라고 하고는 그의 선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뉴먼 목사는 별들을 보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뉴먼 목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교훈하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3절의 시에 그의 의심으로부터 믿음으로, 미혹으로부터 확신으로의 영혼의 순례 경험을 읊었습니다.

이 곡은 작곡가이며 목사인 존 바커스 다이크스(Rev. John Bacchus Dykes: 1823-1876)가 1865년 8월에 작곡하였는데 그는 1834년 3월의 브리티시 매거진(British Magazine)의 낡은 잡지를 읽다가 "천성을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견하여 이에 감동되어 작곡한 곡입니다.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47. 내가 탄 마차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저 요단강 건너 내 집 보이네 하늘나라 올라가네
저 천국 천사 나를 부르네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저 밝은 고향 바라보나니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 주님 내 죄 사해 주셨네 하늘나라 올라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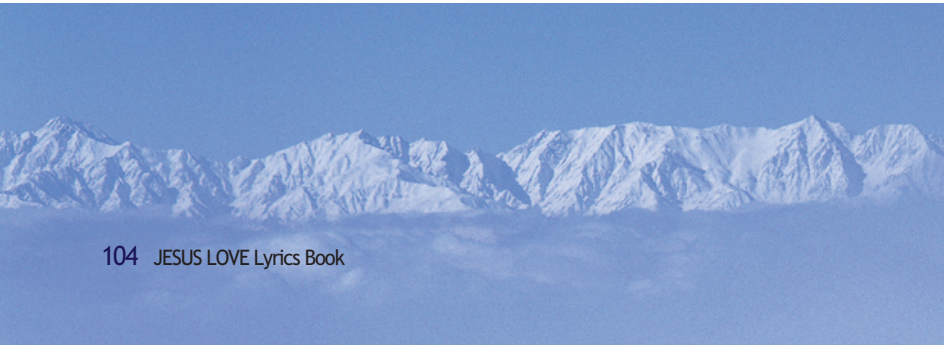
48. 고요한 바다로

1.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니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3.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둔 영혼을 곧 밝게 합소서

4.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줍소서 –아멘



고요한 바다로

세상 사는 동안 풍랑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톱레이디 목사만큼 인생의 풍파를 겪은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우선 육신적으로 그는 폐병으로 고생하였고, 일찍 아버지와 사별하고 가난에서 허덕였으며 영적으로는 그보다 50세나 위였던 웨슬리 목사 형제와의 신학이론상의 논쟁 때문에 더욱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즉, 선민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는 아미니아즘의 웨슬리 형제 목사들과 선민만의 구원론을 주장하는 톱레이디 목사와의 논쟁은 너무나 격렬하였고, 이들은 팸플릿과 설교, 편지, 소책자 그리고 끝내는 찬송 등으로 서로 충돌하였습니다. 영국에서도 가장 존경 받는 웨슬리 목사들에게 톱레이디 목사는 "나는 그를 가장 원한이 사무친 증오자로써 이 섬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본다" 한 때는 "웨슬리는 교황의 권위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나는 권투선수나 무대배우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히 깊이 말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굴뚝소제부와 싸우지 않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논쟁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톱레이디 목사의 "만세반석 열리니"가 나와 감리교회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이들의 전쟁은 멈추었습니다.

이토록 험한 풍랑 속에서 인생을 살던 톱레이디 목사는 38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마치고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1740년 11월 4일 영국 서레이 판햄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영국군의 소령으로 그가 세상에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1741년 카타게나가 포위되었을 때 전사했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그의 어머니는 런던에서 가장 유명한 초등학교인 웨스트민스터에 그를 입학시켰고 후에 가정 형편상 어머니와 아일랜드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우구스터스는 그곳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에 들어가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톱레이디 목사는 무엇보다도 "만세반석 열리니"의 작시로 기독교계에는 샛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영어를 통용어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 찬송처럼 광범위하고 집착력을 갖는 찬송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소개되는 "고요한 바다로" 역시 톱레이디 목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톱레이디 목사가 감리교 부흥목사로부터 은혜를 받아 회개하여 뜨거운 신앙을 가졌는데 그의 진정한 구원론은 칼빈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49.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1.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이 세상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3.세상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50. 나의 죄를 씻기는

1.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2.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4.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5. 영원토록 내 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후렴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51. 그때까지

1. 그때까지 내맘에 찬송있네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지나치는 세상일 생각하니
   이세상은 내집이 아닐세
   그때까지 난 항상 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2. 세상쾌락 그 가치 상실하며
   잠시동안 주어진 것일세
   세상재물 날 괴롭게 하여도
   천국에선 기쁨만 있으리
   그때까지 난 항상찬송하며
   기쁘게 주를 따라가리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
   주 날 부를 그때까지

52. 인애하신 구세주여

1.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2. 자비하신 보좌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3.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맘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4.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 이 어디있을까

후렴
   주여 주여 내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오하이오주의 사업가며 작곡가이고 찬송 인도자 윌리엄 돈(William H. Doane: 1832-1915)이 크로스비(Fanny J. Crosby)를 찾아와서 작곡을 하나 했는데 작시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자 크로스비는 대담하게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에 맞춰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찬송으로 1868년 그가 처음으로 유명한 찬송시를 써서 찬송시인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찬송은 첫줄에 "Pass me not"으로 예수님이 나를 두고 그대로 지나가시지 말아주기를 비는 즉, 자기를 잊거나 빠뜨리지 말라는 기도송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그대로 지나치지,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모르는 척 그대로 지나지는 않습니다. 이 찬송이 예수님의 속성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하여 비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진의는, "나같이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에는 자기도 꼭 불러달라"는 간청이며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크로스비는 장님이었는데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집은 가난해서 이웃의 동정을 받아가며 살았습니다.

크로스비는 그의 눈먼 것을 고치기 위하여 5세 때 뉴욕에 있는 유명한 의사 밸런타인 모트 박사를 찾아 갈 때에는 그의 이웃의 도움으로 갈 정도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눈먼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며 헌신적인 신앙생활로 그의 고뇌를 달랬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8,000여 편의 찬송시가 나왔던 것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나는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더렵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라고 하였다 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이 찬송은 일반적으로 부흥회 때 새로운 결신자를 부르는 찬송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런 목적으로만 쓰여진 것은 아니나 많은 결신자를 얻게 한 찬송가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처럼.

53.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2.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 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3. 교만한 맘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4.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뵈오려고 주께로 옵니다

54. 지금까지 지내 온 것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과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해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55. 이 세상 어딜 가든지

1.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함께 동행하리
능력의 주께서 나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여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2.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있네요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과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열매 맺을 때까지
능력과 은혜 주시며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56. 주님의 보혈

1.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서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2. 성령으로써 성령으로써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 다락방 마가 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57. 내게 만족없었네(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1.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2.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향기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58. 주는 나의 행복

구주를 알때 행복있네
그사랑안에 거하므로
내맘이참 변화 됐네
주는 나의 행복
거듭날 때에 행복있네
예수와 나는 하나되어
구원의 사랑 난 얻었네
주는 나의행복

오 내기쁨 눈물이 두렵지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 받을때 행복있네
값있는 생을 살게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오 내기쁨 눈물이 두렵지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 받을때 행복있네
값있는 생을 살게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행복

59. 예수님 때문에

1.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햇빛 같은 기쁨
빗줄기 같이 큰 강 같은 기쁨 우리 모두 함께 기쁜 찬양하세

2.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고 예수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고
예수 위해 살고 예수 위해 죽고 예수님 때문에

60. 하나님의 나팔소리

1.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 을 모으리

2.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 의 얼굴 뵈오리

3.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 서도록 그 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후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61. 오늘 나는

1. 내가 먼저 손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2.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후렴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채로

62. 누군가 널 위해 기도 하네

1.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 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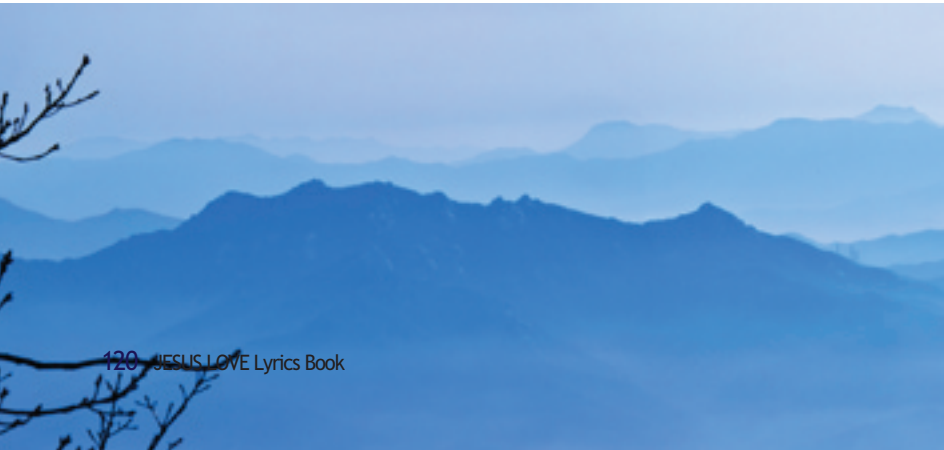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63. 하나님 한 번도 나를(오 신실하신 주)

1.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 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64. 평화의 노래

나 어느날 괴로워서 눈물로서 아뢰일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는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주네
너 슬퍼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지리
너 괴로워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너 슬퍼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지리
너 괴로워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맘 쉼을 얻으리

65. 나의 등 뒤에서

1.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 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66.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좇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좇아 이 죄인을 궁휼히 여기며
또 당신의 즐거움 주옵시고 내모든죄 다 씻어주소서
이 죄인은 주께 범죄를 하고 주앞에서 박을 헤맸으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사 늘 새롭게 내 삶 만드소서

내모든죄 주님께 고백하니 주의 얼굴 죄에서 돌리사
또 당신에 인자함과 긍휼로 내모든죄 다 용서하소서
이 죄인은 주께 범죄를 하고 주앞에서 박을 헤맸으나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시사 늘 새롭게 내 삶 만드소서

67. 푸른천국

평화를 얻기 원하느냐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평화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자유를 얻기 원하느냐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자유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영생를 얻기 원하느냐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영생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사랑을 얻기 원하느냐 주님께 가슴을 열어라
사랑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평화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자유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영생의 푸른 천국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68.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말고 실망치말라 낙심말고 실망치말라 실망치말라
네소원 이루는날 속히오리니 주께 영광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주께 찬양하여라

2.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세상은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네소원 이루는날 속히오리니 주께 영광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3.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말아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전진하여라
네소원 이루는날 속히오리니 주께 영광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리니 주를 찬양하여라

69. 친구의 고백

1. 아름다 웠던- 지난추 억들- 사랑했 었던- 많은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이제
   말없- 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 지..

2. 지난유 월절- 저녁성 찬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핏잔-
   그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뺨- 에 주르르 눈 물만이 흐릅니 다..

3. 새벽닭 울때- 난괴로 웠어- 풍랑이 일면- 난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세상
   끝까- 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텐 데..

후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있고-파 사랑의 십자가 를 맞이하네.

70. 괴로운 인생길과(당신은 아는가)

1. 괴로운 인생길과 무거운 걱정과
   어려운 생애라도 쉬운 한 길이 있네

2. 실망으로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
   너의 사정 이해할 진실한 친구있나

3. 갈길몰라 헤맬 때 인도할 빛 있나
   네 맘이 슬플 때에 누가 널 위로하나

후렴
   이길은 예수님 나의 참 구주
   당신이 따르면 그는 참 당신의 길이요

71. 내 일생 지금까지

내 일생 지금까지 세상길 가다가
어둠속에 방황하며 갈길을 잃었네
내죄악이 넘쳐서 무거운짐 같으니
예수님 앞에나와 죄를 용서 받았네
내일생 지금까지 세상일 하다가
내 죄악 넘치고 넘어 병든몸 되었네
예수여 지도해서 나를잡아 주소서
십자가 흘리신피 나를 지도하셨네

내 일생 지금까지 세상 바라보며
죄악에 나를 맡기고 주님을 멀리했네
예수여 나의 소원 주안에 있사오니
큰소망이루시어 주의영광 받으소서
큰소망이루시어 주의영광 받으소서
주의영광 받으소서 주의영광 받으소서

72.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 쳤지만 허우적 거렸지만 나는 약한자 였었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그 어느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삶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자를 살리며 모든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주셨네

73.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해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74. 고난이 유익이라

1. 네짐이 무겁고 힘이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길은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뒤에 축복이 있다네

2. 고난이 인생의 참의미를 알게하고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큰것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3.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아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길 가는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면류관 있으리